

리빙 수산물 안전관리



“어패류 반드시 85℃ 이상에서 조리하세요”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균 주의 필요
간·담낭 등 고위험군에선 치명률 50%
수산물은 장보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식약처 발생 예측 정보 미리 확인을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며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소홀한 위생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은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만큼 날것으로 먹는 것을 자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이란=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경우에 감염될 수 있으며 오염된 바닷물에 신체의 상처가 노출되는 경우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볼니피쿠스(Vibrio vulnificus)는 바다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18~20℃ 이상으로 상승할 때 증식한다. 따라서 비브리오 패혈증은 대부분 여름철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은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

히 만성 간 질환자나 당뇨, 위장 질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혈류 감염을 일으켜 패혈성 쇼크, 피부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명률 또한 50% 정도로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경우에는 잠복기가 평균 약 2일(최소 3시간~최대 8일) 정도로 발열, 구토, 설사, 수포, 하지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며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 잠복기는 약 12시간으로 부종, 수포성 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근육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기온과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85℃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이상 깨끗하게 씻고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횡감용으로 철저히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해산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손으로 직접 다루는 경우에는 조리 전·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충분히 손 씻기를 한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탕 처리 등을 통해 2차 오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조리 전에 자연 건조 등을 통해 남아있는 소독제를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어패류를 채취·운반·보관 시에는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 조리한 후 바로 먹어야 하며 남기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마트나 시장에서 장보기를 통해 어패류를 구입할 때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구입하고 신속히 귀가해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몸에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발생 예측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vibrio.foodsafetykorea.go.kr/main)을 통해 예보 및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 예측시스템은 해수 온도, 유속 등 환경 인자를 분석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총 4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6월 3일 현재 제주 전 지역은 ‘관심’ 단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9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산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대상은 품목별 생산시설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보관 창고, 도·소매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유통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는 비브리오균, 동물약품 및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생산 단계) 및 수거·검사(유통단계)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산물의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관

부서진 포옹

파도가 없는 바다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강이나 호수와 달리 바다는 파도가 있어서 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도의 일렁이는 모양과 출렁이는 소리는 바다를 떠올릴 때 반사적으로 함께 다가오곤 한다. 한없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반복의 움직임이지만 막상 바라보는 시선을 두 발로 옮겨 파도를 몸으로 맞닥뜨리는 일은 늘 주저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술에 취했거나 사랑에 취했거나 슬픔에 젖었을 때는 머뭇거리기 없이 파도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에서는 파도의 모양과 소리가 하나가 되어 열열하게 차갑고 부드럽기까지 한 두드림으로 느껴지곤 했다.

홍상수 감독의 25번째 영화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겨울날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 한 남자의 장면을 보여준다. 흑백으로 찍힌 영화 속의 이 장면은 느닷없기도 하고 애뜻하기도 했다. 겨울 해변에서 두툼한 외투를 벗고 바지까지 벗은 한 남자는 조심스럽게 파도 쪽으로 향한다. 그는 뛰어들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옮긴다. 파도가 치는 겨울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어찌하여 표정이 새겨져 있었을까. 걸어가

는 그의 뒷모습에 생긴 감정의 표정들, 이를테면 슬픔, 분노, 고통, 체념 같은 단어들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그가 죽음을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행히 영화는 주인공을 되돌려 세워 생의 감각을 일깨운 웃음으로 관객들을 마주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의 포옹. 괜찮니 출지 어서 몸을 녹이자며 어깨를 감싸 안고 품을 내어주는 친구가 다행스럽게도 바다의 뒤에 그리고 주인공의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에 나는 세계 철렁하던 마음이 부드럽게 갖아들었고 심지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심정이 들었다. 나의 앞에 펼쳐진 파도와 나의 뒤에 서있던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파도를 떠올리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로마’ 또한 자연



영화 ‘인트로덕션’.

스레 떠오른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로마 지역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 가정의 젊은 가정부인 클레오의 시선을 따라가는 이야기인 영화 ‘로마’는 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최우수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전 세계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는 실제 바다와 파도의 생생한 질감을 선사한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클레오는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주저 없이 몸을 던진다. 결국 아이를 구한 클레오가 모래사장서 가족들과 함께 뜨거운 포옹을 나눈다. 소리 없는 포옹의 뒤로 파도의 소리가 조금은 고요해졌다고 느낀 것은 나의 안도 때문이었을까. 혹은 포옹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여러 의미로 이 가족의 포옹은 부서진 마음을 완전히 재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출렁이는 마음의 소리들이 몸으로 표정이 새겨져 있었을까. 오래 응크린 고독은 결국 우리의 어떤 문을 세차게 열게 한다. 이 고통과 분노를 들어줄 사람도, 하고 싶은 상대도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뒤흔들어 놓고야 만다. 주저앉기도 하고 숨어 버리기도 하고 사라지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의 가속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재촉하기만 할 때 우리의 뒤에는 소리 없이 품을 내어줄 채비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없지 않을 것이다. 성난 마음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을 뜨겁게 안아줄 그 누군가를 못 본 척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 (표선면 가시리 산158-4)
사려니숲은 건강과 평화, 생명입니다!
6월의 따뜻한 햇살같이 가슴 두근거리는 날! 숲에선 몸도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名品)숲, 사려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연두빛 힐링!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일시: 2021. 6. 4 ~ 6. 6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후원: 산림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선 화
부위원장: 고헌연, 홍인숙, 간사: 신승훈
위원: 강말순, 강민숙, 강창용, 고석찬, 고승화, 김병수, 김순보, 김은미, 김은정, 김주경, 문만석, 박애순, 안재민, 오명찬, 이병철, 이정연, 이정훈, 이종실